

1996년도 경제여건과 산업정책방향

權 坪 五*

1. 産業政策與件의 변화

(1) 국내경제는 軟着陸할 것으로 기대

1995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주도하는 경기활황세가 지속되고, 물가도 안정수준을 유지하는 등 건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 그리고 내수업종과 수출업종간의 경기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전반적인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종에서는 ‘豐饒속의 貧困’에서 오는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995년 3/4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이 9.8%에 이르는 등 好況을 지속하던 우리 경제가 10월 이후 생산과 설비투자 등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연구기관의 예측과는 달리 1996년에는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

1996년도 세계경제여건은 엔화 환율의 약세전망 등 일부 불안한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995년보다 나은 여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세계경제성장률은 1994년의 3.6%, 1995년의 3.8% (추정)에 이어 4%대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세계교역량 증가율도 6%대에 이를 것이며, 국제원자재가격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해 보면 1996년도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潛在成長率인 7%대를 기록하면서 軟着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一角에서는 대형 설비투자가 일단락된 데다 秘資金波紋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마인드가 위축되고 여기에 수출증가율도 1995년도보다 둔화됨으로써 景氣下降幅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1996년도 경기연착륙 여부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어느 수준으로 둔화될 것인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가율에 대하여 경제연구기관들은 1995년 30% 수준에서 1996년에는 대체로 16~17%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엔화약세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자본유입액의 증가로 원화환율의 절상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세계경제성장률 등 대외적인 여건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원화 환율을 어느 정도 안정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5년의 17% (1990년 불변가격 기준)에서 1996년에는 7~9%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설비투자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관

* 通商産業部 産業政策課 書記官

건이 될 것이다. 한편 물가는 총수요압력의 감소,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개방과 가격파괴현상 확산에 따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산물의 해거리 가능성과 총선 등에 따른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1994	1995			1996		
		韓銀	KDI	KIET	韓銀	KDI	KIET
경제성장률(%)	8.4	9.3	9.2	9.2	7.4	7.5	7.2
경상수지(억달러)	△45	△85	△86	△85	△64	△50	△53
소비자물가상승률(%)	6.2	4.6	4.5	5.1	4.8	4.5	5.0

또한 수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중소유통업·중소건설업간, 수출업종과 내수업종간의 경기양극화현상이 경기둔화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이 사회전반으로 파급되어 향후 경제운영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 産業政策興件에 많은 변화 예상

1996년은 1995년 이상으로 산업활동여건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로는, 國民所得 1만달러시대에의 진입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가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국내 총생산 규모로는 세계 11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면에서는 아직도 30위권에 머물러 開途國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부 產油國을 제외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면에서도 20위권내에 진입하게 되어 국민 스스로 先進國에 진입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勤勞보다는 餘暇와 文化生活을, 經濟發展보다는 ‘삶의質’을, 劃一的 消費보다는 개성화·다양화된 소비패턴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하여 勞動費用

이나 福祉費用의 지출이 더 많이 소요됨으로써 산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消費者의 수요패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라이벌기업에게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 일반 국민이나 근로자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한 정책을 펼쳐야 할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地方自治時代의 실질적 출범이다. 형식적으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였지만, 1995년말까지 6개월간은 하나의 學習過程으로 볼 수 있으며, 民選 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1996년부터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각 지역의 산업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가 가장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해당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立地選擇의 폭이 넓어지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肯定的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자체가 지나치게 地域論理와 地域利益에 집착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중앙·지방간의 정책이 상충되는 현상도 수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地域利己主義가 정치권과 연계되어 나타날 경우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 석유비축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의 추진이 제약을 받거나 훨씬 많은 부담이 야기될 수 있고, 기업의 환경관련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하히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이 갖는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것인가가 앞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 외에도 1996년은 국내 유통시장이 본격 개방되는 해로서 대부분이 영세기업인 국내 유통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WTO체제가 출범하고 無限競爭이 전개됨에 따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생산요소의 국경을 넘는 이동이 용이해지고 특히 산업활동의 Globalization이 급진전되는 상황하에서 경쟁력의 源泉은 결국 技術力 밖에 없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 1996年度 經濟政策의 課題

1996년에는 경기하강에 대비하여 경제의 軟着陸을 유도하면서 「新經濟」에 의한 경쟁력강화와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 軟着陸의 유도와 景氣兩極化에의 대응

경기하강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와 재정을 신중적으로 운영하여 자금의 원활한 공급에 힘쓰고 금융개혁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양극화로 인하여 경기호황국면에서 소외되어 온 업종부와 중소기업이 경기하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급격한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기반을 구축하고 구조개선사업과 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속적 안정성장을 위한 成長潛在力 확충에 노력

자본·인력·기술·입지 등 각종 생산요소가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물류시설 등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경제행정규제 개혁의 효과가 기업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土地·金融·外換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경기양극화로 약화된 우리 경제의 景氣對應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資本財產育成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3) 對外不均衡의 해소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세계일류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하여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환·자본자유화의 확대에 따른 資本流入의 증가로 元貨切上壓力이 커짐에 따라 이로 인하여 수출이 타격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4) 經濟安定基調의 확고한 정착

總選, 地自體의 자율성 증대, 民勞總의 출현 등으로 인한 경제불안요소의 해소에 힘쓰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경영혁신, 유통혁신, 농수산물 수급안정노력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여건조성에 힘쓰면서, 특히 생산성향상 범위 내에서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노사협력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1996年度 產業政策方向

1996년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國民所得 1만달러시대의 진입, 지방자치시대의 출범 등 새로운 여건에 맞는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하면서, 「新經濟」 產業發展戰略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세계일류수준으로의 產業競爭

力 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① 여건변화에 부응한 政府役割의 재정립,
 ② 세계일류수준의 산업경쟁력 확보노력 지속 경주, ③ 産業技術革新의 체계적 추진,
 ④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물류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興件變化에 부응한 政府役割의 再定立

산업활동 전반에 걸쳐 競爭을 촉진해나갈 것이다. 석유화학·반도체(이상 2개 업종은 투자지도방안에 의해 신규진입을 제한중) 및 발전설비(산업정책심의회 의결로 韓國重工業으로의 一元化措置 시행)부문의 新規進入制限을 철폐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단체수의계약제도·수입선다변화제도 등 산업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미 석유화학 및 반도체분야의 진입규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발전설비일원화조치도 금명간 해제될 예정이며, 또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과 중소기업고유업종도 금년 1월 1일부터 각각 25개 품목씩 해제한 바 있다.

규제완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그간 절차나 서류간소화 위주의 量的 규제완화에서 탈피하여 경제환경변화로 존치 불필요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금융·경제력집중·토지이용 등 일부 규제는 특정정책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이들은 당해 정책목적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한 규제완화에 한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 규제에 대하여는 연구기관 용역과 관계기관 공동검토를 통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정책목적의 수정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규제완화의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그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WTO체제하에서의 정부지원을 통한 산업발전유도정책이 제약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産業發展비전 제시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6~2005년의 長期産業發展비전을 통하여 기업의 장기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것이며,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대규모 裝置産業의 경우 민간 설비투자협의회를 통하여 長期需給展望에 의한 적정 설비투자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1996년부터 명실상부하게 시작될 지방자치시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활한 政策協調體制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의 바람직한 기능·권한의 조정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지방간 정책조화를 도모하며, 「2000년대를 향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을 통하여 지자체 및 기업에 공단개발과 입지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2) 세계 일류수준의 산업경쟁력 확보노력 지속 추진

우리 산업의 輸入誘發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수립한 「資本財産業 育成對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1996년중에는 국산기계 구입시에도 外貨貸出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機械類專門 割賦金融會社를 통한 국산기계 수요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기계류·부품·소재 시제품개발자금을 확대지원(1995 : 1,200억원 → 1996 : 2,000억원)하고 자본재 품질인증사업 및 우수품질마크(EM마크) 획득제품에 대한 瑕疵保證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플랜트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하는 등 중소플랜트업체의 기술배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産業情報化 및 標準化를 본격 추진할 것이다. 지역정보화 모델사업 및 색채표준화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산업정보전산망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CALS체제의 구축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電子商去來를 촉진하기 위해 「電子商去來支援센터」를 설립하고 EDI·CALS 등 산업정보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農漁村 産業地區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도권내 공업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및 임대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전산망을 통한 전국 공장 및 공단의 분양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장설립절차도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성·고령자·미진학 청소년 등 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유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한 업계·관련단체와의 공동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쾌적한 환경욕구의 증대와 국제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여 環境親和的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1995년말에 제정된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에 관한 法律'에 따라 5년 단위의 綜合施策을 수립·추진하고, 업종별·품목별로 환경요소를 고려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10개 업종에 있어서의 「産業環境實踐課題」 추진을 지원하고 기업의 淸淨生産技術 개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1995년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環境經營認證制度를 본격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진단지도사업을 강화하며,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3) 産業技術革新의 체계적 추진

「産業技術開發 5個年計劃」(1996~2000)에 따라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의 발전단계에 맞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共通隘路技術: 700억원, 中期據點技術: 571억원, 先導技術: 430억원 지원), 漆器·韓紙 등 전통고유기술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별로 산업기술자금을 연계지원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것이다.

한편 산업기술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5년에 처음으로 수립된 「技術下部構造擴充 5個年計劃」에 따라 擴散形 산업기술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현장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産業技術大學(2~4년제, 전국공단과 연결하여 원격지교육을 하는 新大學 형태)을 건립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주문형반도체 설계인력의 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1995: 40억원 → 1996: 95억원), 테크노파크형 산·학·연 연구단지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정비해 나갈 것이다. 기업이 손쉽게 기술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技術評價擔保制度和 技術保險制度의 도입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지도사업(1995: 55억원 → 1996: 67억원) 및 산업디자인 시제품개발사업(1995: 55억원 → 1996: 67억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의 설립 및 公認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설립확대를 유도하여 산업디자인 전

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다.

(4)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물류의 효율화

1996년 流通市場 開放元年에 대응하여 유통산업이 제조업과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간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온 각종 규제와 지원제도를 제조업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유통과학화·합리화에 필수적인 바코드 및 POS시스템 도입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稅負擔이 늘어나지 않도록 稅制支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공동창고건립·점포시설개선·공동구매활동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고 自然綠地地域에 설치할 수 있는 大型割引店의 요건제정, 프랜차이즈사업의 加盟店 보호장치 마련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한 제도정비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通信販賣·訪問販賣 등 無店鋪販賣를 활성화 하되 소비자보호대책도 수립·추진하고, 정당한 廉價販賣行爲를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비할 계획이다.

物流隘路要因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1995년중 자동차·철강·시멘트산업에서 수립한 업종별 물류개선 5개년계획을 주요 업종으로 확대실시하고, 경기 광주·시화·창원·주안공단에 추가(현재 1개소는 완공, 4개소는 건립중)로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에 착수하며 업종별·지역별 물류공동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표준팔레트 등 표준물류시설 도입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물류대상'을 신설하여 기업의 물류표준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5) 주요 産業別 競爭力強化施策의 전개

自動車·造船産業은 생산구조의 질적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차세대자동차, 차세대선박

생산시스템 및 가스운반선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騒音·排出가스 저감기술 등 환경기술의 개발과 리사이클링 확대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電子産業은 반도체산업의 부문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첨단영상음향기기의 상품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1G-DRAM 반도체 기초기술의 조기확보와 반도체장비·재료의 국산화노력을 추진하면서 비메모리부문의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高鮮明(HD)TV, 주문형반도체(ASIC), 평판디스플레이, 디지털VDR, 차세대전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航空·宇宙産業은 중형항공기 및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0년대 세계 10위권 진입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鐵鋼産業은 공급능력 확충을 통하여 스텐레스핫코일·厚板·하방향성 전기강판 등 수급애로품목의 공급원활화를 추진하고, 석유화학은 국내의 수급전망, 품목간 연계성 등을 고려한 석유화학업계의 합리적인 시설투자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生物産業은 응용·생산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安全性 및 效能評價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한편 纖維産業은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자동차 에어백 등 고기능성 소재 및 고부가가치 패션제품용 신소재의 개발, 염색가공기술의 세계일류화, 패션제품의 수출산업화, Quick Response System의 도입 및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生活用品産業은 전통고유기술의 현대화, 디자인개선 및 제품의 高感性化를 통한 세계일류화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기능성 소재·부품 및 자기브랜드 개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